

경기침체에도 뜨거웠던 광주 부동산 시장

광주 아파트 실거래 건수 1만3708건 전년비 8.6% ↑ ...매매가도 상승 아파트 분양건수·수요 증가...청약통장 3만1191개·경쟁률 6.2대1 기록

올해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와 원자재 값 상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 건수는 작년보다 9% 증가했고,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신규 분양세대가 4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3만 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접수됐는데, 올해 지역 부동산 업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 분양과 3000만원이 넘는 초고분양가 등 다양한 이슈들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분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날까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3708건으로 전년(1만2617건) 보다 8.65% 증

가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북구가 4297건으로 매매건수가 가장 많았고, 광산구 3846건, 서구 2779건, 남구 1620건, 동구 1116건 순이었다.

경기침체에도 매매가격은 전년 말보다 소폭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부자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359.2만원이었던 광주지역 아파트의 1㎡ 당 매매가격은 올 10월 기준 360.5만원으로 1.3만원 늘었다.

청약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분양세대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음에도, 최대 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가 나오는 등 '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광주에서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16개 단지 5033세대로, 청약 통장 3만1191개가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6.2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1300세대(12개 단지) 분양에 청약 통장 5501개가 접수되면서 경쟁률 4.23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 분양시장이 호황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 단지는 동구 계림동의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로 1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15가구 대단지로 총 461가구를 분양했는데, 2호선 개통 예정에, 학군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며 평당 2000만원의 비교적 높은 분양가에도 큰 인기를 끌었다.

2위는 서구 쌍촌동의 '상무 센트럴 자이'였다. 14개 동, 903가구 규모의 상무 센트럴 자이는 11.9대 1을 기록했는데 무엇보다 '초고분양가'로 눈길을 끌었다.

이곳의 평당 분양가는 약 3200만원으로, 광주지역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맞먹는 분양가로 이목을 끌었는데 초고분양가에도 역세권과 대형평수, 커뮤니티 공간과 자재 고급화를 내세우며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3위는 9.7대 1을 기록한 서구 금호동의 '위파크 마루공원'이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하나인 위파크 마루공원은 신속 공급이 제한적인 금호동 일대에 들어서는 900세대 규모 대단지로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입지와 시공사 등 좋은 조건에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로 84d타입의 경우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가 많은 해였지만, 미분양이 크게 증가한 해이기도 했다.

올해 분양에 나선 16개 단지 가운데 6개 단지는 경쟁률이 1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291건 이던 미분양 아파트는 올해

10월 기준 568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값 증가로 대출을 주저하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분양가도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민간아파트 동향가격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광주지역 분양가는 평당(3.3㎡) 1800만원(㎡당 545만4000원)으로 전년(1568.5만원) 보다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신규 입주자에게 중도금 무이자 등 파격혜택을 주기로 해 기존 입주자들과 갈등을 빚은 사례들도 나왔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연말 건설업계 PF 위기 등으로 건설경기 위축이 전망되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가 엮여 내년도 부동산 시장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광주에는 민간공원 분양이 많이 남아있고, 재건축·재개발단지도 추가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은행, 광주·전남 사랑카드 전남 고향사랑기부금 9500만원 전달

광주 1억6000만 총 2억5500만원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8일 전남도청을 찾아 '광주·전남 사랑카드' 기부금 9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전남지역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통해 발생한 고향사랑기부금 9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지난 2018년 출시된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광주·전남 사랑카드' ▲'광주·전남 사랑기부금카드' ▲'광주·전남 사랑 Honors V2 Card'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 있는 카드다.

올해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통해 기부된 금액은 총 2억5500만원이다. 기부금은 지난 5일 광주시에 1억6000만원, 지난 28일 전남도에 95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년째 '광주·전남 사랑카드'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총 16억5000만원을 전달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광주·전남 사랑카



28일 '광주·전남 사랑카드'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고병일(왼쪽) 광주은행 은행장과 김영록(가운데) 전남도지사,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향사랑을 실천해주시고 고객들이 있어 기부금을 전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담채 냉장고 사주기 동참...위니아·취약계층 지원 1석 2조

광주상공회의소가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위니아 그룹을 지원하고, 협력사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위니아에서 생산한 담채 냉장고를 구입하기로 했다. <사진>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는 28일 광주상의 주요 회원사와 함께 담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광주지역 취약계층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위니아는 과거 김치냉장고 시장 점유율 1위를 점유했던 경쟁력 있는 업체로, 지역 주력산업 중 하나인 가전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납품대금 연체와 고위험기 상황에 놓여, 450여개의 협력업체와 1만 8000여명의 근로자가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현재 지역에서는 위니아와 협력업체들을 위한 '제품 사주기 운동'에 NH농협은행, 광주도시공사, 광주은행 등 지역의 주요업체와 단체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에 광주상공회의소와 중흥그룹, 다스쿠코, 보



광주상공회의소는 각각 1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모금회는 담채 김치냉장고를 복지시설과 소년·소녀 가장 및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 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다. 정창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올해 대우위니아"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40대 접어든 83년생' 3명중 1명 미혼

88년생 혼인 비율 49.2%

40대에 접어든 1983년생 10명 중 3명은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1983년~1988년생 혼인 및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1983년 국내에서 태어난 이들은 모두 76만9000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71만명이 국내에 살고 있다.

이들 중 71.0%가 혼인(이혼·사별 포함)을 했다.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미혼은 29.0%로 나타났다. 미혼은 남자의 35.5%, 여자의 22.0%였다.

기혼자 중 가장 결혼을 많이 한 나이는 남자는 30세, 여자는 29세였다.

결혼한 이들 중 86.3%는 자녀를 출산했다. 자녀

를 2명 이상인 비중이 50.7%로 가장 많았다. 1명은 35.6%였다.

'노키즈' 부부는 13.7%로 나타났다.

83년생 기혼자 중 첫째 아이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자가 32세, 여자가 29세였다.

83년생 여자 가운데 결혼할 때는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할 때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5.2%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은 출산 등을 이유로 일을 그만뒀다는 의미다. 혼인과 출산 시 모두 직업이 있는 비중은 40.5%였다.

83년생 가운데 '자녀와 함께' 사는 비중이 54.6%로 가장 많았다. 1인 가구는 14.4%였고 부부가구는 6.8%로 나타났다.

1988년 국내에서 태어난 이는 63만39000명이

다. 지난해 11월 기준 59만59000명이 국내에 살고 있다.

88년생의 혼인 비율은 49.2%로 나타나 83년생보다 낮았다. 절반은 미혼인 셈이다. 남자의 59.9%, 여자의 40.5%가 결혼하지 않았다.

혼인한 88년생 중 72.8%가 자녀를 낳았다. 10명 중 3명은 무자녀 부부다.

83년생과 달리 자녀 수도 1명인 비중이 42.1%로 가장 많았다. 2명 이상은 30.7%로 집계됐다.

88년생 기혼자 중 첫째 아이 출산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남자가 33세, 여자가 31세였다.

88년생 여자 가운데 혼인 시 직업이 있었으나 출산 시에는 직업이 없는 비중은 20.6%로 나타났다.

전체 88년생은 '자녀와 함께' 사는 가구가 33.1%로 가장 많았다. /연립뉴스

'부동산 PF 위기'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지하철 2호선 공사 등 차질 우려 "정상화 절차 성실히 이행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시공능력 16위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이날 "다각도의 자구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상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받았으며 이에 따라 워크아웃, 즉 기촉법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의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워크아웃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다육 건설한 기업으로 탈바꿈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태영건설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애초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전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워크아웃설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이날 오전으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능력 순위 16위의 중견기업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연쇄 위기 등 파장이 예상된다.

유동성 문제가 심화됐던 태영건설이 결국 워크

아웃을 신청한 것은 만기가 도래한 부동산 PF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다.

금융권 추산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순수 부동산 PF 잔액은 3조2000억원이며 이달까지 만기인 PF 보증채무는 3956억원이다.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이다. 이는 시공능력 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가장 높은 부채 비율이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광주지역 사업장인 남구덕림지역주택조합 주택단지 건설현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남구덕림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은 총 565세대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22%다. 조합 업무대행사는 "태영 건설에서 준공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태영건설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일부 구간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PF와는 무관하지만 기업의 존폐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시공이 지연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에 대해 광주시 도시철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태영의 워크아웃은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태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임금과 장비대금 등은 광주시가 직접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서 첫 '아파트 리모델링 재건축' 시작한다

봉선동 삼익2차 아파트 3개층 증축·448세대 확장

기존 아파트를 증축해 세대수를 늘리는 방식의 리모델링이 광주에서 첫 시공에 들어간다.

28일 광주 남구청 등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봉선동 삼익2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DL E&C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총공사비는 2330억원이다.

삼익2차는 1991년 준공됐으며 15층 높이 4개동 390세대 규모다.

시공사는 'PT하중전이공법'을 이용해 각 동별로 법적 최대치인 3개층(58세대)씩 증축, 총 448

세대로 확장한다.

다만 인허가청인 남구청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 증축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

리모델링은 아파트 골조를 놔두고 내·외관을 단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으로 증축해 평수나 가구를 늘리는 재건축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최근 노후아파트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사업 방식이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과정과 비슷한 행정절차를 밟는다. 리모델링이 기간 입주자들은 집은 비워야 하며 조합원에게는 분담금이 발생한다.

조합원은 세대 배정에 우선권을 갖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사임

윤의준<사진> 한국에너지공대(켄텍) 총장이 28일 사임했다.

켄텍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는 제7차 임시이사회에서 '총장 사임(안)' 심의, 의결했다.

켄텍 정관에 따라 차기 총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박진호 쉐어 연구부총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켄텍 이사회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윤 총장이 이에 앞서 사임 의사를 포함해 따라 해임이 아닌 사임을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쉐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정산·집행, 출연금 유용, 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의 도덕적 해이 사례를 발견해 윤 총장의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했다.

켄텍 측은 일부 행정적 문제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는 지나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산자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난달 18일 이의 제기 및 재심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은 한전공대 설립 추진위원장으로 학교 설립 전반을 담당하며, 개교와 함께 지난 2021년 초대 총장으로 취임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55.28 (+41.78)
↑ 코스닥	866.57 (+6.78)
↓ 금리(국고채 3년)	3.170 (-0.050)
↓ 환율(USD)	1288.00 (-6.20)